

I-1. 재정전망

가. 세입분야

□ 보존수입

- (교부세) 정부의 내국세 확보 차질로 지방교부세가 지난해에 비해 1조원 가량 감소로 인하여 교부세는 다소 감소될 예정
- (의존 지방세) 부동산 거래회복과 지방소비세 수입 및 조정 교부금 등의 추가 발생으로 일반수입은 증가하나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곤란

□ 자체수입

- (지방세) 경기 둔화로 소비가 위축되어 기업과 연계되는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은 다소 감소할 예정
- (세외수입) 예술의전당, 승마장, 매일시장 등의 신규 사용료 발생 및 진내지구, 송림그린테크단지 토지 판매 수입 등 다소 증가 예상

나. 세출분야

□ 민선6기 출범으로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 큰 폭 증가

- 새로운 공약사업 착수와 지역 SOC사업 지속 정비
-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소상공인·중소기업,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

□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으로 지방비 부담 가속화될 전망

- 기초연금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투자 확대
- 노인복지 및 영유아 보육환경개선, 취약계층 일자리 등 지원확대

□ 공공시설물의 증가에 따른 군민 편익증진 비용 예산 증가

- 예술의전당, 향화도 바다매체타워, 설도 젓갈타운, 산림박물관, 승마장, 청소년문화센터 등 대형 공공시설물의 증가
- 앞으로도 복지서비스 관련 공공시설물의 수요 증가 전망

I-2. 재정운영방향

가. 지방재정 운용 기준 강화

□ 재정여건과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한 재정운용

- 민선5기에 추진했던 대형 사업에 대한 책임행정 시행으로 사업의 안정화
- 공약사업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군민과 밀접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

□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강화

- '08년부터 도입된 사업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
- 대규모 지방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로 예산낭비를 사전 예방

나.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

□ 예산의 균형집행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

- 정부의 지방예산 균형집행 정책으로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지출함에 따라 하반기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상하반기 예산을 고루 편성 및 집행
-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로 실업자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, 인력양성훈련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의 시행

□ 복지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

- 복지에 대한 투자는 예산낭비가 아닌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중요한 사항으로서 특히 노인복지와 영유아 보육환경개선 예산에 투자 비중 강화
- 소방 등 주민안전과 밀접한 소방, 재해위험시설 정비 등의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으로 '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' 건설 구축